

오직 단합만이 우리 양봉업계가 살 길

편집부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항상 ‘내 탓이오’ 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변화를 추구하는 양봉산업을 육성 합시다.

최근 양봉농가는 4년간 최악의 아카시아꿀 생산량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계유지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각종 FTA 다자간협상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양봉농가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우리 업계 내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부 양봉인들은 정부 및 대외기관에 양봉업계를 비방하는 사태를 자행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업계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실제로 지난 6월초에는 본 협회가 농림부로부터 이틀간에 걸쳐 감사를 받기도 하였다. 지난해부터 본 협회가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실시해온 사업과 관련하여 농림부에 양봉인들의 민원제기가 계속 이어지자, 농림부에서도 이를 이상히 여겨 본 협회에 대한 업무 감사로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양봉협회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본 틀을 짜고 4만 양봉농가들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정부차원의 큰 틀에서 생산농가와 판매업체가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양봉협회의 기본 방향이고 임무이다.

우리 양봉산업 전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본 협회도 양봉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은 본 협회가 하는 일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오해로 인해 협회와 반대되는 길을 가려 하고 있다.

물론 본 협회가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만장일치로 모든 회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 협회는 우선적으로 양봉농가를 위해 존재하며, 양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회원 여러분들이 본 협회를 믿고 협력해 나간다면 양봉산업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양관리시 약제 사용을 오·남용하지 않음으로 소비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가 화합하는 양봉인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벌꿀홍작으로 협회나 양봉농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서로가 이해심을 가지고 업계의 내부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분회, 지회, 협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 양봉농가의 힘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항상 ‘내 탓이오’ 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변화를 추구하는 양봉산업을 육성 합시다.